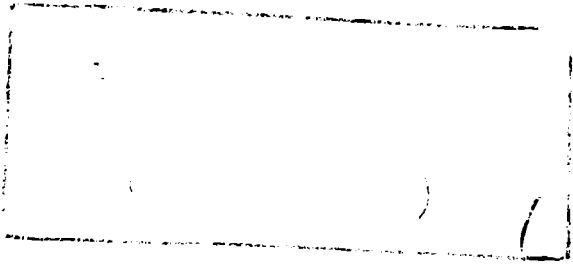


統一運動의 國民化方案



1975. 5.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5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5. 5.

民族統一促進會

目 次

一. 緒 論	3
二. 우리의 槪圖	13
三. 民族的 一体感을 造成하기 위하여	23
四. 國際情勢를 「主体的」으로 活用하라.	39
五. 結 論	49

一. 緒 論

우리의 統一運動은 왜 國民化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統一運動이 現在의 南北分斷된 國土를 機械的으로 「하나」에 復元시키려는 運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民族의 存立을 維持 確保하려는 歷史的 創建行爲이기 때문에 日帝侵略에 對抗하여 拳族的으로 蹶起하였던 3·1 運動과 같이 全民族이 問題解決에 參與하고 全民族이 動員되어서 統一爭取의 推進力을 結集하여야 하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統一問題가 提起되는 始初부터 「超党的」「拳族的」이란 要請이 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理由說明은 차라리 常識的인 것이라 하겠다.

그보다도 우리의 南北分斷은 우리의 民族的 意思와는 아무 關聯도 없이 — 아니 우리의 民族意思를 無視하고 그것과는 反對方向에서 결정된 것이니만큼 여기서 民族이 自己存在를 主張하고 自己權利를 發動하여 外勢가 저질러 놓은 致命的(우리 民族에게)인 事態를 바로잡기 위하여 全民族이 蹶起하여야 한다는 點에 根本的인 理由가 있다함이 더 適切한 說明이라 하겠다.

1973年 11月27日에 發表된 카이로宣言에는 美·中華民國·英國등 3大國은 韓國人民의 奴隸狀態에 留意하여 適當한 順序를 밟아서 韓國을 自由롭고 獨立된 것으로 할 決意를 가지고 있다」는 句節이 들어 있다. 그것은 이들 3大國의 우리 韓民族에 대한 好意였다. 우리는 그 好意에 대하여 眞심으로 感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會議에는 당시 美国大統領 루즈벨트·中華民國 總統 蔣介石, 그리고 英国首相 처어칠이 會談한 것이었는데 특히 蔣總統은 우리 民族에게 獨立을 許容하자는 積極的 發言을 하였다 한다. 우리는 그에게 특별히 감사하는 터이다.

그러나 이 카이로 宣言이나 그에 뒤따른 1945年 7月 26日의 포츠담宣言은 日帝를 徹底히 응징(軍事的으로)한 然後에 日本이 聯合國軍門 앞에 無條件 降服(당시 聯合軍側이 對日終戰條件으로 提示하였던)을 하였을 경우 日本을 軍國主義的으로 다시 再起하지 못하게 하는 措処를 取하는 것이 主題였다. 그리하여 同 宣言은 「3大同盟國은 日本의 侵略을 制止하고 더욱이 이를 응징하기 위하여 戰爭을 遂行하고 있다. 同盟國의 目的은 日本으로 부터 1914年의 第1次大戰 開戰以後에 있어서 日本이 奪取하거나 또는 占領한 太平洋에 있는 도서를 奪取함과 아울러 滿州, 台灣 및 澎湖列島와 같은 日本이 中國으로 부터 剝奪한 一切의 地域을 中華民國에 返還할 것이다. 日本은 또한 暴力 및 탐욕에 의하여 日本이 略取한 다른 일체의 地域으로 부터 驅逐될 것이다」라고 規定하여 聯合國側의 戰爭目的과 降服以後에 日本이 받을 処罰條項등을 내세웠다. 이것이 카이로 宣言의 主題였던 것이다.

다음에 포츠담宣言은 日本 降服 20日 前에 日本의 無條件 降服을 促求하는 最後通牒이었는데 여기에는 軍國主義 日本을 박아내기 위한 더 具體的인 條項들이 提示되어 있다. 即, 카이로宣言은 履行되어야 하며 또 日本의 主權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및 우리들(聯合國側)에 결정하는 諸小島서에 局限될 것이라고 못박았고 우리들은 日本人을 民族으로서 奴隸化하거나 또는 國民으로서 滅亡케하려는 意圖는 없으나 우리들의 捕虜를 학대한 者를 包含하는 일체의 戰爭 犯罪人에 대하여서는 嚴重한 處罰을 加할 것이다.

日本政府는 日本 國民사이에 있어서 民主主義的 傾向의 復活強化에 對한 일체의 障壁을 除去하여야 한다.

言論·宗教 思想의 自由 및 基本的人權의 尊重은 確立되어야 할 것이라고 要求했다. 또 日本은 그 經濟를 維持하고 더욱 公正한 實物 賠償의 履行을 可能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産業의 維持는 許容될 것이다. 但, 日本으로 하여금 戰爭을 위하여 再軍備를 할 수 있는 産業은 許容되지 않는다고 規定하여 日本을 第2流國家 以下로 抑制해 두려는 意思를 밝혀두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카이로宣言이나 포츠담宣言의 主旨는 軍國主義 日本을 解体시키고 저를 單國主義 國家로 再起할 수 없도록 바싹 늘려 놓았는데 있었고 韓國의 解放은 말하자면 그러한 政策의 副産物에 지나지 못하였다. 이것은 결코 弱小者의 処地에서의 빚고아진 心情에서 나오는 結論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들 強大國들(蘇聯까지 包含하여)의 日本 降服以後의 行動突績과 또 美國에 限하여서는 美·日·太平洋 開戰 直前의 兩國間 交涉 過程에서 美國이 取한 姿勢를 갖고 實証할 수 있는 일이었다.

즉 太平洋 開戰 直前인 美·日通商條約이 美國에 依하여 廢棄되었을 적에 協商을 提議한 日本에 대하여 美國이 내놓은 條件은 日本이 淸日·露日 兩戰爭과 韓國聯合에 依하여 獲得한 領土만을 日本이

保有하고 다른地域— 滿州나 中国本土 그밖에 亞細亞地域에서 占有한 곳에서는 일체 撤収하라는 것이었다 한다. 당시 고노에(近衛) 같은 非戰論者는 美国側の 이 要求를 받아들이고 協商을 成立시키는 것이 日本의 國益이 된다고 主張하였으나 軍部가 말을 듣지 않아 결국 開戰으로까지 發展하였다는 것은 오늘날은 公公然하게 말할 수 있는 國際外交上の 神話가 되었거니와 이 당시 美国에는 「韓國解放」이란 眼中에도 없었던 것이다. 만일 이때에 日本國內의 非戰論者가 勝利하여 美·日間の 協商이 成就되었더라면 우리의 오늘날 此地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생각만 하여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다.

카이로宣言에서 使用한 “In due Course” 라는 文字도 問題다. 이 글자는 어떤 사람은 「適當한 時期에……」라 翻譯하고 또 다른 사람은 「適當한 順序를 밟아서……」라고 解釋하고 있는데 카이로宣言의 韓國獨立에 대한 好意에도 不拘하고 日本이 降服하고 그가 武装解除를 하자마자 即時 獨立을 許容한다는 意味는 아니었던 것이다. 勿論 한 民族 한 國家의 獨立이 그렇게 容易한 것이 아니라 함을 우리는 容認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解放 當년 12月 下旬 모스크바3 相會議가 韓國에 대한 5個年間の 國際 信託 統治案을 결정하면서 그 理由로서 36年間이라는 長久한 時日 동안 日本 植民主義 統治下에서 衰殘한 韓國에서 民主主義를 政治 經濟·社會·文化 各方面에 걸쳐 育成하기 위하여서는 最少限 5年間이라는 過渡期가 必要하다고 들었을 때에도 우리는 이것을 이룰

強大國 側의 우리에게 대한 또 한번의 「親切」이라고 받아 들여져야 했을 것이라고 까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大衆이 蹶起하여 「反託」으로써 이 託治案에 맞섰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때의 託治案을 받아들였던 폭이 結果的으로는 오히려 우리의 完全獨立(統一된 形態에서)을 實現하는 捷徑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 우리가 全然 예상치도 못하였던 38 分斷線이 생기고 美·蘇 兩軍이 南北을 各各 分占하는 동시에 北韓에 進駐한 蘇聯軍 大部隊(20 萬說)는 韓國에 소비에트 體制를 強要할 意思는 없다고 聲言하면서도 共産黨 獨裁 體制에 방불한 것을 一方的으로 着着 樹立하고 北韓의 重要 産業 施設을 自國으로 撤去하기에 餘念이 없었고 그 들이 實施하는 「改革」이란 것도 그들의 標榜과는 달리 韓國的 「現實」이나 「全體」 韓國이라는 것은 考慮함이 없이 強行해 나아가니 누구보다도 解放 半個年度도 지나지 못해서 새로운 壓制者 밑에서 苦惱·呻吟하는 北韓 大衆의 民心이 蘇軍政이나 그 앞잡이 體制에서 完全 離反하였고 한편 南韓에 進駐한 美軍은 당초의 美·蘇 兩軍間 諒解되기는 南北分占이나 38 分斷이 아니라 단지 日本軍 武裝解除를 위한 便宜上 責任區域을 갈라서 말았을 뿐이라고 辯明하면서도 蘇聯軍의 北韓에서의 行動에 대해서는 변변히 異議도 提起하지 않고 韓國 그 自体에 대한 美軍의 認識은 全然 白紙狀態여서 우리의 獨立問題에 關하여 議論할 相對를 選擇함에 있어서 갈망질망하였고, 무엇보다도 우리 大衆의 反感을 산 것은 法秩序를 維持한다는 구실과

또 行政能力者 내지 技術者를 擧用한다는 口實下인 日帝 統治가 남기고 간 遺制를 仍用, 溫存하려하고 또 親日·附日分子로 指目받는 사람들을 登用 또는 애써 寬容하려는 態度·政策이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당시 우리 大衆에게는 모스크바 3 相會議 결정 — 韓國 信託, 統治案은 外勢가 우리의 獨立을 遲延시키려는 또 한번의 術策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 일부 指導者 中には 民族獨立의 前途를 위하여 內心 託治案을 再考해 보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없지도 아니하였으나 公公然히 그러한 意思表示를 꺼려야 할 만큼 그때 大衆의 外勢不信 感情은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民族이 主体的으로 活用 如何에 따라서는 우리의 完全獨立(統一된 形態에서)을 實現하는 하나의 찬스가 될수도 있는 것을 逸失하는 結果가 되고 말았음은 결국 外勢—強大國들이 우리 民族의 意思와는 동떨어진 곳에서 우리 民族意思는 考慮하지 않고 때로는 그 反對方向에서 우리 獨立問題를 處理코져 하는에서 오는 당연한 結果였다.

우리는 韓國託治案과 關聯한 美國의 態度에 관하여 또 다른 情報을 갖고 있다. 즉 美國의 戰時 大統領 루즈벨트는 韓國 解放問題가 論議되는 어떤 席上에서 韓國을 獨立시키려면 最少限 30年~50年間의 國際管理가 前提되어야 한다는 意見을 吐露하였다 한다. 이것은 中華民國側 어떤 文獻에도 記錄되어 있거니와 우리나라에서도 年前 서울大學의 朴某教授가 8.15를 回顧하는 論說에서 言及한 일이 있었다.

우리의 最大 友邦인 美国조차 이렇다 한다면 爾餘의 諸国에서는 더 以上 期待할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美国은 美·蘇共委 决裂 以後에 韓国問題를 유엔으로 옮겨 갔었지만 여기서는 美·蘇間의 所謂 冷戰으로 極限對決을 하다가 결국 六·二五事變이라는 民族的 大慘劇이었던 熱戰을 거쳐서 四半世紀가 지나도록 유엔總會는 年年 儀禮的인 「韓國問題決議案」만을 되풀이 다루면서 오늘에 이른것이 우리 統一問題였다.

這間 國際情勢는 몇차례의 旋回를 거듭하는 동안 오늘의 우리 統一問題는 美·蘇·中共·日本 등 四強의 利害關係에 얽히게 되고 이들 四強은 우리 分斷된 韓國을 가운데 놓고 各自 相對方의 눈치만을 살피보면서 자기의 國家利益을 앞세우기에만 熱中하는 나머지 韓國의 統一보다는 차라리 現狀維持(分斷된 現狀대로)를 바라는 心情으로 기울고 있음이 現下 우리 統一問題의 真相이라 할 수 있겠다.

以上 論述은 要컨대 우리에게 대한 獨立許容·우리 國土分斷, 그리고 우리의 再統一을 이처럼 遲延시키는 一連의 過程에서 우리 民族은 完全히 疎外되었고 또 지금도 疎外되고 있음을 指擣함에 그 目的이 있었다.

이러한 民族疎外는 실상 日帝 36年間に 걸치는 植民主義統治의 延長이었다. 日帝는 韓國을 併呑하자 3千年의 傳統을 지니는 우리 民族歷史를 斷絶시키고 당시 3千萬에 達하는 人口—人間存在을 「제로」視하고, 3千里 疆土는 단지 不毛荒廢한 物理的, 地

理的 延長空間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看做하면서 그들의 苛酷한 侵略政策을 強行했던 것이다. 그들의 所謂 「同化政策」이니 「内地延長主義」이니 하는 것들은 그토록 苛酷하였던 侵略政策의 別名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韓国領域에서는 韓民族이 消失・蒸發・抹殺되고 오직 「白紙化한 半島」만이 日帝領土의 一部分으로 남았을 뿐이었다.

日帝 韓用學者들은 韓国史란 主体性和 內的發展이 欠如하고 韓民族은 퇴영的이고 無氣力하며 獨創性이 없고 事大主義에 억매이고 党派性이 強하며 그 歷史는 굴욕적인 外圧과 內患으로 始終하였다 고 虛構하고 韓国史의 이러한 他律的인 性格은 地政學的으로 宿命 지어진 것이니 차라리 日本支配의 恩顧에 帰附함이 韓國人의 「康福」(日本天皇의 所謂 合併詔書가 使用한 文字)이 된다고 構說 堅說했었다. 日帝侵略을 合理化하고 韓國人으로 하여금 民族的 自主를 諦念・斷念케 하려는 心算에서 였다.

그러나 解放以後 國內외의 史學者들이 우리의 近代史를 誠實하게 研究한 結果는 日帝 韓国侵略을 위하여 門을 열어놓는 契機가 되었던 朝鮮・日本間의 이른바 丙子修好條約 (一八七六年) 締結以前에 벌써 韓国社會 內部에는 近代化를 志向하는 自足的・生動的 發展을 이룩하고 있었다 한다. 즉, 資本主義的 萌芽가 벌써 成長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交換經濟・貨物經濟가 近代化方向의 前段階에 到達하리만큼 發展하여 商業資本의 蓄積・賃金勞動의 發生・鉉山 冶金產業界의 어떤 部門에서는 매니페슈어形態의 經營方式까지도 登場하고

있었으며 意識面에서는 實學思想 등이 그러한 發展의 뒷받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위의 丙子修好條約이 締結된 八七六年은 日本開國 一八五四年보다 22年 締約을 強要한 日本 明治政府 成立 一八六八年 보다 꼭 8年이 뒤졌을 뿐이다. 만일 이때의 朝鮮開國이 正常的인 形態에서 이루어졌었다면 兩國의 開化 資本主義的인 近代化는 그리 큰 隔差를 갖지않고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韓國側의 이와같은 主体的. 內的 發展을 沮害. 亂. 기形化하고 封殺하여 우리나라의 近代化를 抑制한 犯罪者는 日帝侵略主義였다. 그러한 前歷을 가진 日本이 오늘날에 와서 우리 民族이 疎外된 代로의 우리 統一問題에 關하여 四強의 하나로 登場하였다는 것은 참말 歷史의 아이로니가 아닐 수 없다.

이에서 우리는 우리 統一問題에 있어서의 民族疎外化를 克服하고 나아가 主体的意識을 갖고 統一成就를 志向하며 그것을 拳族的인 課題로 삼고 拳族的인 強有力한 意慾을 結集하고 實動함으로써 民族存立上 絶對的要件이 되는 統一成就를 戰取하기 위하여 우리 統一運動은 國民化가 時急하다고 提唱하는 바이다. 某教授 지은 韓國史新論은 所謂 事大主義問題에 關하여 「실사 百步를 讓해서 韓半島는 大陸에 대하여 武力的으로 劣勢를 免할 수 없는 位置에 있었다고 假定하더라도 그렇다고 韓國은 그러한 武力에 대하여 항상 事大主義的態度를 取하여 왔다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韓國에 대한 武力的인 壓力은 漢族의 경우 보다도 北方民族이 더 했지만, 韓國民族은 이에 대하여 항상 敵對視하고 排他的인 태도를 取해 왔

었다. 武力的인 屈服은 하였으나 그들에 대한 事大主義的 傾向은
좀처럼 생겨나지 않았다. 韓國民族은 異民族의 壓力에 抵抗하는
民族意識을 日本人과는 比較도 안될 정도로 強하게 가지고 있다고
일컬고 있는 것도 決코 지나친 誇張안으로 넘겨버릴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論하고 있다. 果然 戰後 韓國史를 再檢討·再研究하
고 있는 良識的인 日本史學者들도 韓國民族의 外優劣力에 대한 강인
한 抵抗力은 3千年에 걸치는 韓國史에 一貫하고 있다고 認定하고
이點 日本民族은 오히려 韓國民族을 模範삼을만하다고 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韓國史를 他律的·事大主義的·黨爭的이고 主体性과 內的
發展이 欠如되었다고 보는 것은 日帝侵略을 合理化하고 그에게 아
부하는 御用學者들이 造作한 神話였다. 우리 同胞들 중에서도 우
리 歷史가 그런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야말로 「倭毒」
에 感染된 경우라 하겠다. 同胞여! 이러한 왜독을랑 快히 털
어버리고 民族的 矜持와 自信을 갖고 統一運動 國民化戰線에 捲기
합이 可하다.

二. 우리의 構圖

統一運動의 國民化方案에 關한 우리의 構圖는 다음과 같다.

I. 官民一致 超黨的 國民運動의 機構가 되게 하기 위하여 「統一運動 全國協議會」(假稱 - 以下에서는 「全協」이라 略한다)를 構成한다.

全協의 構成은 새로 設立할 것이 아니라 現存하는 民間運動團體와 大學 안에 施設되어있는 統一問題 研究所 등을 網羅해서 할 것이다. 만일 이미 類似組織이 되어있다면 그를 擴大改組함으로써 足하다. 但 政黨이나 政黨안의 統一問題 專門分科나 言論機關안의 同種施設들은 全協構成에서 除外한다.

그는 이 運動이 어떤 特定 政黨의 統一政策이나 또는 特定新聞 論調에 一辺倒하는 結果가 되지않게 하기 위함이다. 政黨들은 全協에서 結集되는 國民的 輿論을 國會院內에 忠實히 反映하고 또 言論機關들은 全協的意趣와 動向을 各其 紙上에 報導하여 國策遂行에 이바지하도록 全協 局外에서 嚴正中立할 것이다. 그렇게 함이 政黨들이나 言論機關들의 各其 所任을 다하고 또 全協을 公平히 支援하는 所以가 된다 하는 바이다. 만일 政黨人이나 言論人이 個人的으로 全協運動에 熱誠 寄与코져 하는 경우에는 全協 構成團體 어느 하나를 選拔하여 거기에 加入함으로써 할 수 있다. 이것은 公務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但 公務員으로써 法에 依하여

社會團體에 加入하지 못하게 된 때를 除外하고

Ⅱ. 全協은 中央에 本部를 設置하는 外에 地方機構를 갖지 아니하면 構成團體인 民間運動團體의 全國的 會勢 擴大를 獎勵할 것이다.

全協 構成團體 代表로써 本部總會를 構成하고 總會에서 執行機關인 本部 理事會를 選出 構成하고 그 理事會 直屬下에 事務局을 設置한다. 한편 全協은 構成團體의 全國에 結晶, 地方組織(支部·分會 등) 擴大를 支援하여야 한다. 그것의 會員 包摂은 大韓民國의 成年 以上 男女老少를 廣汎히 받아들여 특히 青年層 婦女子 大衆을 網羅하기에 注力할 것이다. (그러한 理由에 關하여서는 뒤에 다시 言及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構成團體들이 全協運動을 通하여 各其 統一政策 路線을 選択하게 되면 路線의 異同과 類似 혹 一致點을 가려서 民間運動團體들의 統合·再構成 등으로 그 整備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도 運動團體들의 統合問題가 提起되었으나 各其 取하는 路線에 對한 比較·綜合·調整이 없이 機械的으로 形式的인 統合이란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그러한 統合體는 統合된 힘을 發揮할 수도 없다. 또 現在의 各 運動團體들은 그 體質이 너무나 微弱하여 그 自体의 存立조차 維持하기 困難한 實情에 있다. 그러므로 民間 運動團體들의 統合은 各其 個別團體들의 體質이 改善·育成되고 全協的 實踐을 通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Ⅲ. 學究는 象牙塔에서 내려와서 全協이란 廣場에서 群衆을 만나고 群衆은 全協廣場에서 啓蒙 訓練을 받는등 全協은 統一問題에 關한 國民輿論 結集의 地(貯水地)이 되게한다.

「近代」를 넘어서서 「現代」에 접어든 20世紀 後半의 人類歷史는 어떤 意味에서는 테크노라트時代라고 할 수도 있다. 政治・經濟・社會・文化 全面에 걸쳐서 專門家 엑스퍼트들의 抬頭와 활약은 오늘날 世界 各國에서 顯著한 事實이다. 美國 國會가 자주 자주 學者 專門家들을 불러 聽聞會를 開催하며 또 大統領 周圍에 是 各界 學者들이 顧問 혹은 諮問委員職을 맡은 사람들로 大統領 府(白堊館과 같은)가 充溢하고 있으며(有名한 키신저 博士도 그런 部類에 屬하는 출신이었다) 先進國은 勿論 이든바 後進國 내지 開發途上國들에서도 首相이나 長官職에 學究型 人物들이 統統 進出하고 있음도 이러한 世界的 趨勢의 一面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數年前부터 적어도 經濟施策 部面에서는 教授 評價團이란 것의 手苦를 請하고 있는 모양이나 만일 政府가 이들의 評言을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만 들어서 施策業績을 宣傳하는 뒷받침이나 참고 評價의 「苦言」에는 一顧도 하지 않는다면 굳하여 그런 節次를 밟을 必要는 없을 것이다. 또 만일 그러한 評價團 構成에 苦言을 勿할만한 教授는 부르지부터 않고 그러한 可能性이 없는 「穩健한」 사람들만을 모아들인다면 그것은 하나의 「行事」에 지나지 못하고 제스처에 그치고마는 結果가 될 것이다.

우리 統一問題는 民族의 存立을 左右하는 重大課題이기 때문에

全協은 「民族大衆」과 「民族學究」가 서로 만나는 広場이 되게 하기 위하여 全協構成에 大學의 研究가 參加하기를 要求하는 바이며 學究들이 象牙塔에서 나와서 全協広場으로 動員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大學의 研究自由 保障問題가 반드시 隨伴한다. 우리는 全協運動과 關聯하여 이 問題에 대한 眞摯한 討議가 있기를 바란다.

IV. 國土統一은 全協広場을 通하여 有能한 人材를 그 諮問機關 등 協力機關에 吸收 起用토록 할 것이다.

國土統一院에는 諮問委員이 있고 또 最近 新聞報道에 依하면 「統一政策開發委員會」를 設置할 計劃이라 한다. 모두 좋은 일이 어니와 지금까지 그 構成名單등을 보면 너무나 名士 羅列主義에 기울어지고 있는듯 하다. 이분들의 意見은 勿論 國策樹立과 施行에 값진 것이 될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統一院이 이들의 名望을 단지 某種利用價值만을 念頭に 두고 그런 名單을 꾸민다면 그 것 역시 實効를 거두기란 至難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全協運動이 進步되고 全協広場이 實質적으로 形成되어 大衆的 實踐을 통해서 有能한 人材가 浮上하였을 때에 그들을 統一院 外廓機關에 吸收 起用하기에 인색 하지말기를 勸告하는 바이다.

우리는 以上에서 全協運動이 前提하여야 할 몇가지 原則을 提示하였거니와 이제 는 全協運動에 대한 政府의 姿勢에 關하여 論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우리는 위의 原則 第1에서 官民一致하는 國民運動이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말은 결코 全協運動을 官民

混成 팀으로 하자함이 아니다. 官이 運動에 全幅的으로 干与하라거나 「領率」하라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이른바 縮用運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民間側인 이 運動이 全的으로 官에 依存한다거나 全的으로 그의 「補助」를 받아서 하란말도 아니다. 그렇게 되면 全協은 이른바 政府에 대한 들러리運動 밖에 안될 것이다. 모두 純粹한 國民運動이 될 수 없다. 政府가 全協에 대하여 가질 姿勢는 마땅히 그의 自由로운 活動을 保障하며 그가 健全한 方向에서 發展할 수 있도록 길을 予備 해주고 그 進路上에 있는 障礙物을 除去하며 당연히 取하여야 할 方向으로의 發展을 誘導함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政府는 먼저 獨善主義를 固執하지 말아야 한다. 真理는 언제든지 複數的 可能性 중에서 第1近似值를 發見하는 곳에 있다. 政府는 지금 우리 統一問題에 關하여 일정한 方向을 設定하고 그 目標를 向하여 眞摯하게 달리고 있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設定된 方向-政策이란 것이 唯一絶對的인 것으로 看做해서는 안된다. 어떤 政策方向이 絶對 唯一的인 것으로 固執되다가 失敗한 例는 달리도 史上 許多하겠지만은 우리는 解放以後 우리 歷史上에서 그 殷鑑을 찾아볼 수 있다. 前大統領 李承晩博士는 統一을 軍事的 北進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絶對」 確信하면서 그 「唯一的 政策」을 밀고 나아가 六.二五慘劇에 到達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金日成이나 당시 六.二五 兩侵을 背後 操縱한 元兇이던 스탈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大韓民國을 釜山까지 밀고 내려가서 海中에 처박겠다

고 豪言壯談하다가 결국 제가 쫓겨서 鴨綠江 건너목까지 밀려갔던 것이다.

당시 李博士는 平和統一을 입밖에 내는 사람을 國賊視하고 「平和共存」이라는 用語가 새로 流行하기 시작할 무렵 이 用語를 解說하려는 사람을 投獄하는 일까지도 서슴치않고 敢行하였다. 그만큼 그는 自己政策—北進統一論의 唯一絶對性을 確信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歴史的인 七.四共同聲明에 依하여 平和統一이 우리의 國策으로 定立됐다. 당시와 지금을 駁計하면 참말 隔世의 感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한 變動이 不過 20年間 内外 동안에 일어났다. 한 政策의 唯一絶對性이란 것이 얼마나 虚妄한가 함을 알 수 있겠다. 만일 金日成이 지금도 「南進 赤化統一」政策을 絶對唯一한 것으로 믿고 劃策한다면 그것이 白日夢에 그치고 말것은 우리들 일반이 잘 알고 있는바와 같다.

政府가 全協運動에 對하여 위에서 言及한 바와같이 올바르게 對処함으로써 期待할 수 있는 成果는 무엇이겠는가. 全協廣場에서의 大衆的 實踐을 通하여 만일 政府가 現在 設定하고 있는 政策方向에서 國民輿論의 支持를 받게되면 즉 그 方向에서 우리 國論統一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政府로서는 大部分일 것이요. 그러한 大成功까지는 못된다 할지라도 全協廣場에서의 大衆的 實踐을 通하여 次善的 또는 三善的 政策方向으로 國民輿論이 結集된다고 하여도 그것을 거두어서 自己가 設定하고 있는 政策方向 實施上의 參考 혹은 補完資料로서 活用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政策이나 어떤 一黨一派의 主張이라 할지라도 公開하여 그 討論과 批判에 勸耐할 수 있는 것이야지 거기서 밀려날 性質의 것이라면 그는 쓸모없는 것임에 틀림없다. 政府라 할지라도 自己의 政策을 公衆 앞에 내놓아 討論과 批判을 받기를 꺼려하면서 說得에는 힘쓰지 않고 公衆의 意思表示를 拒否・制限・抑制 封殺하기에만 熱中한다면 그것이야말로 非民主的 作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政府는 全協運動에 關하여 위에 提示한 바와 같이 을 바른 姿勢를 取할 것은 勿論 全協廣場에서의 實踐을 통하여 結集되는 國民輿論이 新聞紙上에 反映되거나 国会院内를 거쳐 行政府에 傳達되거나 或 全協이 直通으로 政府에 建議하거나 또는 그것이 公開聲明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政府는 항상 謙虛한 마음을 갖고 이에 傾聽하는 雅量을 가져야 한다. 政府가 이러한 姿勢를 갖고 全協을 育成하는 것만이 「官民一致」 이 運動을 大成케 하는 길 이라고 우리는 確信한다.

全協運動에 政府의 이러한 姿勢는 現代 民主主義가 擬制化한 그 危機를 打開하는 한 方道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緊切하게 政府에게 勸告하고 싶다. 現代 民主主義의 擬制化 現象이 近來 여러가지 모양으로 자주 드러나고 있음은 各 國에서 看取할 수 있는 바이어니와 그중에서도 한가지 顯著한 것은 「官」의 意思가 「民」에게 上意下達하는 通路는 漸漸 擴大 完備하고 있음에 反하여 「民」의 소리가 「官」에게 下意上達하는 通路는 漸漸 좁혀지고 制限을 받다가 마침내 閉塞狀態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라 하겠다. 이는 本來 全體의 利益을 위하여 쓰거로 約束되어 있는 權力을 잡는 사람들이 自己 或은 自派의 部分的 利益을 增進시키기 위하여 橫占 行使하는데서 오는 弊端이었다. 그들은 權力의 物理的 基礎가 되는 組織的 實力으로서의 軍隊와 警察을 動員하고 또 教育과 매스컴을 통하여 自己에게 有利한 宣傳活動을 한다. 이와 같은 權力濫用을 抑制하며 統制하는 機構가

民主主義 體制下의 나라마다 構築되어 있음은 사실이다. (그것도 憲法으로). 그러나 人民主權의 表現인 制度的 保證은 「民」으로부터 「官」에 通하는 파이프通路는 制限된 細管인데다가 때때로 閉塞되어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고 있음이 現下의 實情이다.

그 反面 「官」으로부터 「民」에게 通하는 파이프는 官僚制라고 하는 徹底한 上意下達의 通路로써 民을 向하여 열려져 있다. 이 위에서 부터 밑으로의 흐름을 민첩하게 하기 위하여 組織과 實力을 背暴으로 한 壓力이 加重한다. 또 위에서부터 밑으로의 흐름을 円滑化하기 위하여 이 지음 특히 重要視되고 있는 「P.R活動」이라 稱하는 送風機까지 마련되어 있다. 더우기 官僚制는 그 專門的 分化라고 하는 橫的 分離主義와 職階制라고 하는 縱的 分離主義에 依하여 到處에서 밑에서부터 위에서의 送流를 막도록 阻止的 弁으로서 稼働하여 民意上達을 妨害하고 있다. 이와같이 下降 파이프와 上昇파이프 사이의 놀랄만한 不均衡이 人民主權을 名目化하고 形體化하고 있음이 現代民主主義 擬制化的 真相인 것이다.

이리하여 이미 閉塞되어 못쓰게 된 民意上達「파이프」를 그만 性急하게 爆破해 버리자니 그것은 暴力的 反體制運動 — 「革命」으로 가는 길ियो 廢物化한 파이프와 併行하여 하나의 新通路를 敷設코져 하는 것이 院外活動 — 大衆데모의 形態를 取하게 된다.

1956년에 學生들과 勞動組合이 提携하여 일어섰던 巴里蜂起를 비롯 그에 뒤따라서 西獨, 日本, 泰國 등의 所謂 스튜던트 파워나 특히 美國의 블랙파워(黑人 人種問題)의 抬頭는 모두 그러한

時代的 產物이었다. 우리는 지금「韓國的 民主主義의 定立」或은 「民主主義의 韓國的 定立」을 꾀하고 있다. 그러한 定立을 위하여 民意上達의 파이프를 誠心껏 応·活用하는 것은 참말 歷史의 새로운 페이지를 우리손으로 펼치게 한다는 點에서도 重要的 意義를 갖는다 하겠다. 政府가 全協運動에 대하여 올바른 姿勢를 가지라고 거듭 勸告하는 所以이다.

三. 民族的 一体感을 造成하기 위하여

그런데 官民一致가 되려면, 먼저 「国民一体」가 이루어져야 한다. 国民總和나 國論統一이니 하는 것이 唱道됨도 그 까닭이다.

그러나 이러한 主唱들도 国民一体가 이루어진 基礎 위에서만 實現될 수 있다. 이 課題는 共同社会 内部에 賦存하는 過大한 貧富 懸隔을 어떻게 打破하느냐하는 形態로 나타난다.

오늘날 後進地域 일반의 人民大衆은 어디서나 絶對多數가 絶望的인 貧窮과 疾病. 無教育=無知. 慾求不滿 등등으로 人間다운 処遇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隸屬의 수렁탕 속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後進國에서 이 貧富隔差를 打破하는 課題를 올바르게 解決하지 못하고 民主主義를 土着化한다거나, 建設한다는 計劃은 모두가 헛수고 緣木求魚的 結果에 돌아갈 것은 必定的事實이다. 共同社会 存立의 基本條件 그 土台가 되는 經濟構造面에서의 심한 龜裂이나 均衡破壞가 있게되면 그 共同社会는 存立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統一問題도 마찬가지다. 우리 社会成員 各自가 서있는 位置 즉 우리 共同社会 内部에 賦存하는 貧富隔差에서 오는 그 位置의 相異에 따라서 統一을 志問하는 熱意와 그 成就를 追求하며 推進力이 되고져하는 그 熱意에 差異가 생긴다. 貧富隔差에서 오는 位置의 相異는 온 國民大衆의 生活態度. 社会的 氣風. 國民士氣 일반에도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는 사실을 우리는 否認할 수가 없

다.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工業化 先進國들의 이른바 多國籍大企業이 全世界를 制覇하고 橫行하는 時代 그리고 역시 이들 先進國에서 밀려드는 大潮流인 消費文化의 最高度 昂進이 일반 大衆으로부터 政治的 關心을 빼앗아 버리는 時代에 살고 있다. 일례를 들어보면 近世民主主義 議會制度 發展의 母國이라 하는 英國의 勞動黨은 總選舉를 치를때마다 投票日字의 날씨가 어떻겠는가 함을 豫斷하는 것이 戰略上 重要 題目的 하나가 되어있다 한다. 왜냐하면 날씨가 좋으면 有權大衆은 投票所를 가지 않고 郊外散策과 野遊로 人波가 모여들어 범석이며 즐기고 날씨가 좀 나쁘면 有權大衆은 애여 집밖에 나서지 않고 棄權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날씨 關係로 말미암은 戰略上的 蹉跌—그 被害는 勞動黨側에 더 심하기 때문에 勞動黨은 選舉日字 惝定을 그의 重要한 戰略課題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의 英國勞動黨은 이른바 블루칼라 내지 新中產階層까지 그의 支持基盤으로 擴大하고 있는데 이들 블루칼라나 新中產階層도 때로는 勞動黨 또는 그 黨籍을 버리고 保守黨쪽으로 大挙離脫하여 거기에 票를 던지는 적이 가끔 있다. 이것도 現代消費文化에 沈潛한 이 나라 有權者들이 「變革」과 「前進」을 꾀하는 勞動黨보다도 現狀維持에 그치고 말기가 일쑤인 保守黨政策을 攄하기 때문이다.

現代的 消費文化의 向上이 大衆一般으로부터 政治的 關心—특히 「健全한」 政治的 關心을 빼앗아 버린 實情의 一面이라 하겠다.

이러한 現代的 消費文化의 昂進이 우리 民族共同社會에도 甚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統一問題를 中心으로 그 真相을 한번 따져 봐야겠다. 그것은 우리 民族의 存立을 左右하는 民族的 重要課題인 統一問題를 앞에 두고 우리 스스로를 省察해 보는 必要한 契機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民族共同社會의 頂點에는 極少數의 特權層이 있고 그 다음에 正確한 計數는 할 수 없다 하려니와 少數임에 틀림이 없는 亞特權層이 있다.

여기에는 오늘날 財閥·大資産家·大單位企業家 내지 그 經營者들이 包含되는데 그들은 先進諸國에서는 所謂 부르주아지 내지 独占資本家라고 불리울만한 階層이다.

그러나 이들은 先進國에서의 該當階層과는 달리 이른바 칼빈主義的 精神의 把持와 實踐이 欠如되고 또 正常的인 自由競爭을 통하여 形成된 階層이 아니라 勤儉·節約 또 公共奉仕라는 高貴한 칼빈主義的 精神을 抱懷·實踐할 機會도 없었거니와 스펀터가 說明하는대로 資本主義란 私的企業者에 依한 不斷의 創造的(經營革新·技術革新 등) 均衡·破壞過程이라 한다면 그러한 피나는 競爭에서 勝利하는 經歷도 쌓지 못한채 國家의 官僚主義的 統制와 計劃 내지 「特惠」의 틀안에서 말하자면 人工的으로 育成된 存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階層과 官僚와는 처음부터 癒着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모든 不正·腐敗는 醸成되고 生産되며 再生産되어 나온다.

우리나라의 지금體制를 官僚資本主義的이라 함도 이 까닭이요.

우리나라의 不正, 腐敗를 「構造的」이라 일컫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또 本橋에서 이들을 特權層, 壟特權層으로 부르는 緣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國民의 이름으로 얻어들이는 莫大한 外國借款의 惠沢을 独占하고 있으며 國家로부터 金融財政과 法制, 行政上의 全幅的 支援을 받고 있으며 國富의 大部分을 占有하고 있다. 그들의 企業活動은 消費財의 生産과 輸入에나 偏向하며 아니면 外國서 部分品을 들여다가 組立工業이나 하는 것을 큰 재간으로 안다.

그들의 外款 融資를 받아서 하는 事業은 大部分이 「不實企業」이라 하지 않는가. 某國에서 所謂斜陽産業을 박아지쓰는 것은 그들의 不察所致라 하려니와 國內生産이 겨우 育成되고 있는터에 「外資와의 合併」이라는 名目 밑에 威士忌, 코카콜라 등 清涼飲料工業과 日本의 산토리酒造工業까지 들여온다면 그것은 그들이 外國의 多國籍企業에 系列化하여 그의 國內代理店 구실을 하고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그들은 蓄積된 資金을 가지고 자주 자주 不動産 投倣에 뛰어들어 橫行하고 인플레이가 昂進되면 現物買占에 熱中하며 外換率 變動이 있을 때마다 크게 한몫을 본다.

그들이 國內不安을 틈타서 財産을 外國으로 逃避시킬 嫌疑를 받고 있음도 굳하여 智利의 先例를 引用할 必要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우리 統一問題에 대한 姿勢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插話가

這間의 소식을 들려주고 있다. 즉 板門店 休戰協定의 결과로 제네바에서 關係国会議가 열리고 거기에서 韓國政府를 代表한 당시 外務部長官 卞榮泰가 南.北人口比例에 依한 總選舉로 統一하자는 提案을 하였을 적의 이야기다. 당시 이미 한 重要部門의 長官을 지낸 某가 그 사실이 報道된 新聞紙 장을 들고 허둥지둥 이런 問題에 관하여 關心이 많은 自己知人을 찾아와서 青天벽력과도 같은 이 重大뉴스의 真相을 물었다. 그 知人의 대답이 「그저 뭐 한번 그해보는거지……무슨 成立될 可望이야 있겠는가」고 하였더니 그 曾經長官씨 「글세 그러면 그렇겠지! 統一이 그렇게 수월하게 되었어야 되겠는가」고 이제는 安心된다는 듯이 자기 가슴을 쓰다듬으며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 前職長官 某라는 人物은 당시 아직 六.二五慘劇을 겪고난 直後 時期요, 또 당시 아직 李博士 執權 중이었고 李博士의 北進統一 路線을 忠實하게 追從하던 사람이니 만큼 제네바에서 날아온 뉴스를 「청천벽력」的인 것으로 생각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일개 長官이었지 여기서 말하는 特權層 내지 亞特權層에 屬하는 直接一員은 아니었다 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사람이 이른바 特權層. 亞特權層과 應着되어 있는 高位官僚이었던 것은 사실이며 위에서 論及한 바와같이 오늘날 우리 社會에서 特權層. 亞特權層하는 사람들의 階層的體質의 欠點. 弱點 등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六.二五 直後보다도 더 深刻하게 統統 露呈되고 있는 以上 百步를 讓하여 이 挿話가 全然 訛伝

이었다 할지라도 저들의 우리 統一問題에 대한 性向을 實在物로 그냥 남아있다. 즉 그들은 그들의 現在權益에 대하여 어떤 損失이나 打擧을 가져올 可能性이 있다고 그들이 判斷하는 어떠한 統一方案에도 그들은 贊成치 않을 것이며 現狀維持를 再確認하는—적어도 그런 狀態를 可及的 오래 延長시킬 수 있는 그런 方案이라야 그들의 口味에 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特權層 . 亞特權層에게서 우리 統一問題에 대한 積極的 . 前進的 姿勢나 熱意를 期待할 수는 없다. 그들은 우리 統一成就에서 主役을 담당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참말 우리나라 오늘의 特權層이 자리잡고 있는 그 社會的位置 . 生活感覺 등은 庶民大衆의 그것에 比하여 火星人과 地球人과의 距離와도 같이 그렇게 懸隔하게 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 都市의 新興中產階級과 勤勞階級 그리고 全國의 庶民大衆이 愛國的 意識에 立脚하여 一大聯結을 이루었을 때에 그것은 우리나라 民主主義建設이나 統一成就를 위하여 큰 役割을 担当할 수 있다—아니 이 部分의 國民大衆이야말로 우리나라의 民主主義 建設과 統一問題 解決을 担荷할 主役 . 主力部隊인 것이다.

우리 나라 中間的 社會層 중에는 沒落되어가는 旧中產階層도 남아 있음이 사실일지 모르나 한편 다른나라에서 이른바 「블류 칼라」라고 부르는 部層도 여기에 包含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新中產階級도 다른 여러 先進國들의 該當階層과 같

이 進就性과 所望을 갖고 社会生活을 營爲하여 나아갈 수가 있다.

그들은 적지않은 部分이 밑의 階層에서 上昇해 왔고 일부분은 더욱 위로 上昇해 가는 階級間 移動에 希望을 품을 수 있는 近代社会에서는 새로히 形成되는 階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現代 資本主義의 消費文化 向上이 大衆으로 부터 政治的關心을 앗아간다 할때에 우리나라 新中産階級도 그 「汚染市」圈內에 깊숙히 끌려 들어가 있다 함이 오늘의 現狀이다.

그들은 맨션아파트에서 洋式家具를 華麗하게 차려놓고 살기를 좋아하며 아낙네들의 化粧品은 일체 外製야하고 日常生必需品도 均하여 舶來品을 찾는다. 家族計劃 宣傳에서 「두홀만 낳기」를 勸奨함은 多産보다도 낳은 것을 잘기르라는 趣旨이겠는데 抑制하면서 낳은 그 「두홀」의 養育은 貧母에게 맡겨두고 엄마 . 아버지는 各種 娛樂場과 遊園地를 찾아 外出 . 外泊 . 旅行하면서 삶을 즐긴다.

그들의 板門店 赤十字會談이나 南北調節委 會議에 관한 뉴스보다도 少年棋手, 趙治勲이 日本의 「사카다」老棋手와 對局하여 2敗3勝이냐에 관한 뉴스에 더 關心을 쏟는다. 國威拳揚이란 이름 밑에 國際舞臺에 派遣되는 各種 스포츠選手들이 「頂上」에 오르는 것을 큰 榮譽로 생각한다. 도대체 일반 日刊新聞보다도 스포츠關係 特殊新聞이 더 잘 팔리는 原因은 무엇인가 무릇 지금 時代와 같이 消費文化가 高度 向上된 狀況下에서는 消費的 . 享樂的 私生活의 進展과 相伴하여 基本的人權이나 政治的關心 같은 것은 내버린 私生活의 享受로 轉落하고 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映畵 . 스포츠 . 섹

쓰 등에 依해서 代表되는 生活追求가 可能한 限 基本的人權은 그 것으로써 充足되었다 믿고 거기에 安住해 버린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都市 新中産階層에게는 그들의 兪한 職場環境이나 政治的 与件으로부터도 「關心喪失」이 일어난다.

이것은 우리나라 特異의 歴史的 現實을 反映한다 할 수 있겠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官公署 各種企業体 . 機關 등등에서 實力競争이나 資格評價에 依하여 當연한 職位를 차지하고 昇進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上納」成績과 上司에 대한 阿諛荷容하는 그 「行狀」을 勸案하여 純全히 「他意」에 依해 이루어지니 이들의 服務가 正常的인 것이 될 수 없다. 또 그들은 일찌기 公明選舉라는 것을 經驗하여 보지 못했다.

그리고 民主主義 体制維持를 위한 基礎原理중의 하나가 法治主義인데 이 나라에서는 일찌기 이 原理가 제대로 施行돼 본 적이 없었다. 法의 制定부터가 「날치기」通過등에 依하여 非民主적으로 되고, 일단 制定되었던 法도 執權者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억지로 뜯어 고치고 (憲法까지도), 뿐만 아니라 有効한 法도 그대로 施行하지 않는다.

이러한 政治的 与件 밑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都市 新中産階層이 政治的 關心을 잃게됨은 필연적 帰結이라 하겠다. 그들은 다만 關心喪失 뿐만아니라 政治에 대하여 不信 . 嫌惡하게 까지 되었다.

저들은 七 . 四共同聲明이 發表되었을 적에 一沫의 不安感을 가지면서도 雙手를 들어 歡迎하였으며 赤十字 南北 代表團이 서울과

平壤을 오갈 때에는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歡送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自發적으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뒤 「對話」가 停滯・中斷 狀態에 陷入하자 그들은 크게 失望하였다. 처음의 期待가 컸었더니만큼 그들의 이번 失望도 그만큼 컸었다. 이제 그들은 板門店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또 統一問題에 關하여 政府가 무엇을 發表하든지 그것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차라리 이런것 저런것 다 잊어버리고 낚시나 週末休暇旅行길에 오르고 만다. 이리하여 우리나라 中産階層의 統一에 대한 士氣는 지금 지극히 低下되어 있고 또 挫折狀態에 있다.

이와 같은 挫折狀態는 다만 都市의 新興 中産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이미 論及해 둔바와 같이 이 都市中産層과 愛國的인 聯結을 形成한다면 우리나라 民主主義建設과 統一成就를 위하여 큰 구실—中樞的 役割을 担当할 수 있는 都市 勤勞階級과 農民大衆속에도 널리 普遍化되어 있고 또 적어도 勤勞階層과 農民大衆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挫折이 現代 消費文化의 汚染・侵潤에서 보다는 政治的 与件으로부터 오는 影響이 더 많다는 點에 事態의 深刻性은 있을 것이다.

本稿에서 特權層・亞特權層이라 부르는 階層이 先進 諸國에서와 같이 正常的인 歴史的 歷程을 거쳐서 成長한 부르조아지가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지금 都市 勤勞階級도 우리 나라 特殊한 歴史的 條件이 남아놓은 存在였다.

우리 都市勤勞階層 一角에는 아직도 前近代的 中小企業部門에 屬

하는 從業員들이 적지 않고 또 消費文化의 發展에 따라 서비스業 部門의 從業員들이 漸增하고 있다. 이들은 勤勞者가 經營者에 대하여 勞動權益을 主張하며 獲得함에 있어서 唯一한 手段이라고 할 수 있는 團結—組織化를 하기 困難하고 또한 組合이 構成된다 하여도 充分한 힘을 發揮할 수가 없다. 그러한 힘을 낼수도 있고 그러한 團結을 할 수 있는 部分이 다를 先進國들에서 所謂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는 近代 産業 工場의 從業員들인데 여기서는 現代 우리나라 實情으로는 官製勞動組織 以外的 勤勞者 自身에 依한 勤勞者 自身을 위한 勤勞者 스스로의 自主的 勞動運動이 許容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勤勞者의 團結權을 結集할 수도 없고 發動할 수도 없다. 얼마前에 서울 東大門市場內 某職場에서 너무나 低賃金임에 抗議하여 縊身自殺한 青年이 있었고 또 서울市內 어떤 곳에서 職場 占拠事件 南쪽 某 大單位工場에서 暴力化한 罷業事件 등이 있었다 하는데 이것들은 現下 官製 勞動運動 밖에는 許容되어 있지 아니하는 條件 밑에서 일어난 非正常的 事故였다.

한편 産業豫備軍이라 불리우는 失業群 大部隊가 都市 勤勞階層背後에 賦存하고 農村의 剩餘勞力은 産業豫備軍에 대하여 無盡藏의 給源이 되어있기 때문에 勞賃의 引上要求는 容易히 貫徹될 수가 없다. 그리하여 勞賃水準은 物價上昇率을 到底히 뒤따라 가지 못하니 勤勞階層의 生活不安은 解消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改善조차도 容易치 않다.

실상 오늘날 우리나라의 低賃金水準은 國家的要請인 輸出增大와

日本으로부터의 소위 保稅加工 注文 誘致의 基本條件이 되어 있다. 国内 勞賃水準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輸出商品이 國際市場의 競争裡에 進出할 수가 있고, 日本 企業家들은 저의나라 賃金水準보다도 훨씬 싸기 때문에 그 唯一한 條件을 노리면서 심지어 印刷工作物의 加工作業까지도 韓國에 注文해 오는 것이다. 西獨등지에 勞力輸出이 可能한 것과 最近 南美移民이 부쩍 늘어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国内 勞賃의 低水準임과 우리나라 失業率이 높은 사실을 反映하고 있는 것이다. 近代民主主義 先進國들에서 勤勞階層의 團結된 힘이 民主主義의 護持와 그 發展을 위하여 重大한 役割을 하고 있음은 굳하여 英.美나 가까운 日本의 例를 들 필요도 없이 歴然한 사실이어니와 우리나라에서는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自主的 勞動運動이 欠如되어 있기 때문에 都市 勤勞階級의 民主力量의 結集과 그 成長이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그들은 勞賃引上의 要求를 貫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國家가 「垂惠」的으로 制定한 勞動基準法의 適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統一成就를 위하여, 당연히 있어야 할 이 階層大衆의 意慾 發揮과 實力發動은 크게 抑制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 國民大衆은 그의 保守性 때문에 언제나 「改革」이나 「前進」運動에 앞장을 설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運動을 担荷할 수 있는 正當한 勢力과 同盟關係를 맺을 때에 歷史進展上 큰 役割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同盟相對가 될 都

市の 新興中産階層과 勤勞層 大衆이 以上에서 論述한 바와 같은 与件 밑에 놓여 있음에 加하여 (加之) 農民階層 그 自体 内部의 事情이 또한 問題다. 즉 우리나라 農民은 8.15 以後 土地改革의 遲延과 不徹底로 말미암아 營農企業化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工產品 價格과 農產物 價格사이의 소위 缺狀差가 좁혀지지 못한데다가 역시 世界的 趨勢라고 볼 수 있는 極甚한 인플레이 經濟의 渦中 그 수렁탕에 陷入하여 容易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慾求不滿 . 期待未充足이 累積된 狀態에서 離農 . 都市移入의 機會를 노리며 마음이 들떠 있다. 除隊軍人들은 都市의 失業者 . 流浪民이 될지언정 「절대로」 歸農하지 아니하며 無垢한 처녀들은 食母자리도 쉽게 求하지 못하여 「무작정 上京」者로 倫落의 구렁에 빠진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農民大衆으로부터 統一成就에 대한 積極的 姿勢를 變求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學生大衆은 2 . 8 獨立宣言을 비롯 3 . 1 運動, 六十萬歲 光州學生事件 등 一貫하여 社會參與 내지 社會改革運動에 항상 앞장 서는 빛나는 傳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現下 學生運動과 先進國의 소위 스킴트 . 파워 사이에는 그 性向上 若干의 差異가 있다. 즉 先進國에서는 이미 民主化된 社會的 環境 속에서 民主主義가 法制化 徵候를 露呈했을 때에 그 是正을 要求하고 또 大學教育制度의 낡아빠진 것의 改善을 要求하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運動이 極化 . 左傾하였다가도 그들의 要求가 어

는 程度 貫徹되거나 冷却期의 時間이 얼마쯤 지나면 스스로 反省하고 運動이 隱微化하여 鎮靜도 되지 않는 歐洲과 美國서는 벌써 일어나고 있는 現象 우리나라의 現下 學生運動은 社会的 環境의 民主主義化와 캠퍼스內에서의 學問研究의 自由등 民主主義社會 存立의 基本條件을 스스로의 힘으로 「戰取」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外部에서부터 오는 非民主主義的인 어떠한 刺戟에도 가장 敏感하고 또 자주 자주 街頭에 進出하게도 된다. (위에서 우리나라 學生운동이 빛나는 傳統을 樹立하였다고, 指摘한 것도 그들의 課題가 民主主義의 基本的條件을 貫徹코져 하는, 우리나라 特異의 歷史的現實을 反映하였기 때문에 그 記錄이 熱烈하고 急進的인 것이 될 수 있었다) 이런 性向의 우리나라 學生운동을 對話를 통하여 그들의 要求를 들어보고 또 들어줄만한 것은 들어줌으로써 解決策을 模索하지 않고 摧淚彈의 威力이나 東洋第一의 「파울소」를 建立하여 抑壓, 為主하다가는 그들의 慾求不滿이 累積돼서 反省은 커녕 도리어 저들을 左傾化로 물고가는 결과 밖에 낳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事態의 그러한 惡化를 진실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젊고 良識的이요, 또 熱情的인 그들은 우리 統一問題에 있어서도 가장 積極的인 姿勢를 갖고 그 成就를 追求한다. 政府는 그들의 民主力量을 善導, 育成하여 우리 統一成就에 活用함이 可하다.

우리 民族共同社會의 庶民層 맨 밑바닥에 都市 貧窮民 내지 貧民 窟 生活者가 있다. 이들의 統一成就에 대한 士氣는 「제로」線에 가깝다 하겠다. 그들의 數는 얼마 되지 아니하니 放心해도 좋다

할 것인가. 그러나 첫째로 同胞의 貧窮을 보고도 못본 체함은 國民道義上 그럴 수가 없는 일이다. 또 지금과 같은 世界的 經濟 沈滯期에 処하여 앞으로 그런 不幸한 同胞의 數는 늘면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 함과 그들의 士氣 最低線 狀態가 오래 끌면 갈수록 다른 社會部面에까지 影響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以上 우리 國民大衆의 統一成就에 대한 士氣를 各階級別로 따져 본 결과는 土崩瓦解의 感이 없지 아니하다. 그것은 너무 지나친 杞憂라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이 杞憂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最近 漸漸 더 顯著化해가는 「大學出國」(Exodus)現象을 보고는 토봉와해感이 도무지 가셔지지 않는다. 舊約聖書에 나오는 이스라엘民族의 이집트出國은 奴隸된 狀態에서 自己를 解放하여 故國을 再建코져 하는 建設的인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同胞들의 出國(여기서는 「大學出國」을 略하여 이렇게 쓴다.)은 마치 개미들이 불붙는 자기 집둥지를 限死코 벗어나서, 뿔뿔히 호터지는 式의 破壞的인 것이다.

우리는 이와같은 國民士氣의 瓦解狀態에 絶望하고 統一謀乘 遂行에서 한거름이라도 退轉을 하여서는 안된다.

우리 社會内部에 대한 숨김 없는 省察은 現存狀況을 打開하고 頹勢를 挽回함에 필요한 是正策을 樹立. 實踐하기 위한 하나의 前提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政府는 모름지기 現下의 貧富隔差를 打破。除去함을 中心課題로 施策上의 果敢한 一大轉換을 斷行하여야 한다。 貧富隔差의 打破야말로 民主主義를 實質化하기 위한 經濟的 뒷받침이 되는 것이며 民族一體感을 造成하는 基本要件이다。 이 要件의 充足없이 는 國民總和나 國論統一은 이룩될 수 없다고 우리는 거듭거듭 強調하는 바이다。 그리고 全協選動은 國家施策上의 그러한 轉換을 위한 氣運造成에 全幅寄與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四. 國際情勢를 「主体的」으로 活用하라.

七. 四共同聲明이 祖国 統一原則 첫째에서 「自主적으로 解決」云云하였다 해서 우리 힘만 갖고 統一을 成就한다는 말은 아니었다. 우선 오늘의 世界는 어떻게 強大한 나라라도 저 혼자만으로는 存立할 수가 없다. 國家들 間의 相互依存이 오늘의 歷史的 現實인 것이다. 「부라질」나라 커피農作의 凶豊은 곧장 서울 茶房, 손님들 호주머니에 影響을 주며 「아라비아」產油의 減產 或은 그 原油價 大幅引上이 全世界의 經濟沈滯—그 不況을 가져오고 있지 않는가. 특히 우리와 같이 묘한 地政學的 位置에 있는 나라가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純全한 外勢에 依하여 저질러진 國土分斷은 再統一하는 問題는 國際的인 關聯없이는 絶對로 解決지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統一을 成就하기 위하여 國際情勢를 「主体的」으로 活用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니셔티브를 取하고 우리가 항상 主導權을 잡고 하자는 것뿐이다. 우리는 한번 우리 統一問題를 圍繞하는 四強—美·蘇·中共·日本등이 우리 統一問題를 中間에 놓고 相互 어떻게 얼켜져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겠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國際外交關係에 있어서는 各國마다 國際的 道義보다도 自國의 國家的 利益을 優先한다는 사실이다. 美國의 對韓政策도 그 例外는 아니었다.

지난 時代에 日帝가 旧韓國을 소위 保護國으로 삼으려 하였을

때에 美國은 率先 이를 承認하였으며 그의 極東政策은 韓·日 兩國을 놓고 저울질 할 때에 언제나 對日關係에 더 置重하면서 行動해 왔었다는 사실에 대한 回顧는 그만두고라도 解放以後 지금까지 그의 對韓政策은 始終 自己의 國家的 利益을 中心으로 回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美國이 우리의 最大 友邦國임을 否認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國家間的 友好關係라는 것도 相互間的 利害— 國家的 利害가 一致할 때에만 成立될 수 있다함을 다짐하고 있을 뿐이다. 國家間的 友好關係는 어느 一方이 他方에 대하여 垂惠的 同情的 態度를 갖는다 해서 이루어질 수도 없고 設使 그렇게하여 友好關係가 一時的으로 맺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 持續되지 못할 것은 必定 事實이다.

美國은 二次大戰 直後 對蘇關係에 있어서 冷戰이 激化되고 全世界가 自由 共產 兩大陣營으로 完全히 갈다져서 對峙하게 되자 그는 雄大한 世界政策을 樹立하고 그 實踐에 들어갔다. 그것은 反蘇 國際 共同戰線을 形成하여 蘇聯과 共產世界를 包圍함으로써 共產主義의 그 以上の 對外進攻·擴大를 沮止하고 그 包圍網의 鐵環을 漸漸 壓縮함으로써 共產主義 그 自体를 위로 말아서 집어치는 이른바 「물뱀」勝利를 거두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歐州에서 「나토」(NATO = 北大西洋條約機構)를 結成하고 地中海와 中東地區를 거쳐 東南亞의 「세토」(東南亞條約機構)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集團安全保障體制를 樹立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56年 헝가리 蜂起가 일어났을 때에 自由世界—美國은

束手無策으로 對蘇 反共 包圍網의 虛點을 드러냈고 美國이 越南戰에 말려들어 수렁탕에 빠졌을 적에 그의 「롤백」 政策은 破綻되고 말았다. 여기서 美國의 世界政策에도 一大轉換이 왔다. 곧 從來의 對決에서 和解政策—東亞和解·協商政策으로 旋回를 斷行한 것이었다. 이는 勿論 美國이 白旗를 들고 共產主義 軍門앞에 나타나 「乞和」함을 意味하지는 않는다. 美國은 越南戰爭 遂行 過程에서 아무리 自國의 超強大한 国力을 갖고도 自己 意圖대로만 世界政策을 成就시킬 수는 없다하는 사실—즉 超強大한 美國 国力이 할 수 있는 일에는 「限界」가 있다하는 사실을 徹底히 깨달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從來의 對決을 통해서가 아니라 和解 協商을 통해서 自國의 國家利益을 確保하려는 것이 美國의 世界政策 轉換의 真意라 할 수 있다.

美國은 六·二五事變 以來 오늘날까지 韓國에 對하여 莫大한 經援과 軍援을 供與하고 自國軍의 韓國駐留를 持續하고 있으며 또 韓國軍의 裝備改善—그 現代化를 積極 支援하고 있다. 그것은 韓國이 世界的 反蘇·反共 包圍戰線의 最前方을 擔當하는 位置에 있기 때문에 美國의 당시 世界政策 遂行上 必要 不可欠한 일이었다. 한편 韓國이 美國의 經援 軍援을 받아들이고 美國과의 共同防衛體制를 確保함은 이 나라의 國家存立上 必要不可欠한 일—즉 韓國의 國家利益을 圖謀하는 길이었다.

그리하여 「롤백」政策 實施期間중의 韓·美間 緊密한 綑帶關係가 成立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美國의 世界政策이 和解協商主義로 轉

換한 以上 美國의 對韓政策에도 變更이 加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勿論 韓國의 民主勝利的 統一을 支援한다는 點에서는 지금이나 앞으로 美國은 絶대 妥協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對共關係에 있어서 對話를 通하여 和解를 摸索하는 以上 軍事力을 갖고 對共攻擧를 할 機會는 當분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軍事作戰에 韓國軍이 參加하여야 할 機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韓國軍의 現代化計劃은 如前히 서두르고 있으며 美軍의 韓國 撤収問題도 몇번 그 時限 設定을 延期하면서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은 결국 對共協商上 有利한 高地를 차지하고 있겠다는 속셈이 그 裏面에 가리워져 있다. 그런데 그 協商課題로써는 다만 우리의 統一問題뿐만 아니라 全世界問題가 包含될 것이니 그 進行 過程에서 美國의 國家的 利益을 위하여 그의 韓國駐留軍을 意外에도 早期 徹収해야 할 必要가 생길지도 모른다. 어쨌든 美軍의 韓國에서의 完全 撤収는 必至의 形勢에 있다. 그리고 韓國의 民主勝利的 統一이라 하는 것도 對蘇·對中共 協商過程에서 그 「內容」이 결정될 것이지 어떤 一定한 條件만을 美國은 固執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야한다.

蘇聯이 大部隊를 이끌고 北韓에 進駐하여 六·二五事變이 터질 때까지 取한 行動은 韓國을(當분간은 北韓만이라도) 共產衛星國化하려는 意圖에서였다 함을 이제는 숨길 수 없을 것이다. 만일 統一韓國의 그러한 処地로 転落하고 만다면 韓國에도 所謂「브레즈네프·독트린」을 適用하려 들것이니 韓國이 蘇聯의 勢力圈軌道에서

벗어나기란 容易치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統一問題에 關한 國際的 交涉 過程에서 蘇聯의 意圖가 偏重的으로 反影되는 方向에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極力 警戒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現下의 東西和解·協商이 進行됨에 따라서 蘇聯도 우리 統一問題에 대하여 自己意思만을 一方的으로 固執할 수는 없게 되었다.

우선 對美協商에서 그러하고 對日·對中共 關係에서 牽制를 받지 않을 수 없다. 最近 蘇聯이 韓國스포츠·文化人·企業家등 旅行者의 入國을 極히 制限된 範圍에서이기는 하나 許容 緩和하고 있으며, 또한 日本國政府의 周旋을 通해서이기는 하나 사하린僑胞送還을 許容할 意思가 있는듯한 態度로 나오는 것도 그러한 徵候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中共의 蘇聯 牽制 役割은 우리 統一問題를 둘러싼 國際間 交涉이 具体化함에 따라서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한편 우리가 우리 統一問題와 關聯하여 蘇聯에게 期待할 수 있는 면도 있다. 그것은 그가 金日成集團의 好戰的인 態度를 拋棄까지는 몰라도 若干 緩和하는 影響은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사실이다. 우선 蘇聯은 金日成의 對南軍事的 侵攻 挑發行爲를 支援하지 않겠다는 決定的 方針을 表明함으로써 그를 有効하게 牽制할 수가 있고 또 世界共產圈 안에서 가장 落後的인 金日成體制에 對하여 反省을 促求함으로써 北韓內部的 反 金日成 勢力 내지 北韓 人民大衆의 反金日成 鬪爭을 鼓舞하는 結果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이와같이 蘇聯이 金日成 集團의 好戰的 態度를 緩和하는 일이나 金日成体制의 内部改革을 鼓舞하는 일은 蘇聯이 오늘의 東西和解 協商政策을 拋棄하지 않는 以上 蘇聯의 國家的 利益과 一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政府가 어떠한 通路를 通하여서든지 蘇聯과의 接近을 試圖해 봄은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러한 試圖가 成功되기를 바란다.

中共의 對韓政策—우리 統一問題를 緯綫한 그의 政策은 첫째 極東에서의 美軍 撤収를 要求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른바 上海共同聲明을 發表하면서 美國과 中共은 越南에 美軍이 撤収함과 同時에 台灣水域에서의 美兵力도 물러나고 台灣에 대한 美國의 支援도 撤回한다는 것으로 諒解가 되어있었는데, 北京과 워싱턴의 彼此 連絡 事務所는 開店休業狀態에 陷入했고 這間 美 國務長官 「키신저」의 또 한번의 中共訪問을 완곡히 拒否한 것이나 美大統領 「포드」의 年内 中共訪問도 如實히 받아들여질지 어쩔지 모른다는 程度로 美·中共間의 協商이 停滯되고 冷却化한 것은 美軍의 아세아 이地域에서의 撤収가 늦어짐에 對한 不滿表示인것 같다고 國際消息通들은 伝하고 있다. 또 中共이 유엔에서 美國 韓國駐留軍 撤収를 要求하는 決議案 提起에 항상 앞장서는 것도 要컨대 美軍의 極東地域에서의 早速한 撤収를 貫徹코져 하는 그의 政策의 表現인 것이다.

둘째로 中共의 對韓政策은 日本의 韓國進出이 孤張되고 確固해지 는 것을 未然에 沮止코져 하는데 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韓

國統一의 成就가 時日만 虛送하고 무작정 延期됨은 自國의 國家的利益과 一致되지 않는다는 立場을 中共은 取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中共의 對韓政策을 蘇聯이 統一韓國을 어떠한 形態로든지 衛星國化함을 反對한다. 中共은 蘇聯의 對外擴張政策(이른바 「부레즈네프·독트린」 包含)을 社會帝國主義라고 規定하면서 그런 것의 발호를 許容치 않으려 한다. 中共의 蘇聯에 對한 修正主義非難 내지 「이데올로기」紛爭도 실상은 對蘇 反帝國主義 鬪爭의 別稱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對蘇 國境紛爭도 그렇고 그가 이른바 世界 「超強」중에 들지 아니하고 世界第3勢力을 領導하여 美·蘇 兩超強의 世界制霸에 對峙해 싸우겠노라고 表明하고 있음도 모두 그런 속셈에서 緣由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 中共과 日本 間에서도 平和 友好條約의 締結을 위한 協商이 進行되고 있거니와 5月중에는 마무리하려고 하나 아직 妥結짓지 못한 唯一한 題目은 中共이 東亞地域에서 어떠한 나라의 hegemon도 認定치 않는다는 條項을 插入코져 함에 대하여 日本이 躊躇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이는 中共이 蘇聯의 提唱인 이른바 東亞 新安全 保障體制 樹立案은 실상 蘇聯이 中共 包圍를 劃策하는 것이라 보고 日本의 協調를 얻어 이를 沮止하려는 意圖의 表現이라고 解釋할 수 있겠다.

日本은 그 條項 하나만을 受諾하면 條約締結이 可能한 터에 왜 주저하고 있는가 하면 우선 蘇聯의 心情을 傷하지 말아야 하겠고

美國의 意思도 알아 봐야 하겠기 때문이다. 日本은 對中共 平和條約 協商과 同時에 對蘇 平和條約도 協商중에 있으며 또한 그의 對美 直接關係도 있지마는 美蘇間協商이 進行되고 있는 以上 그 結果가 東亞의 全局面에 어떤 影響을 미칠지를 考慮하지 않으면 안될 如地에 놓여있다. 하여간 四強은 各自의 國家的 利害關係로 말미암아 여기서도 이와같이 얽혀 있는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看過해서 안될 일은 이 東亞 安全保障體制 樹立問題는 그것이 누구의 提唱이든지 間에 우리 統一問題와 直結된다고 하는 사실이겠다.

왜냐하면 統一韓國의 獨立을 維持하려면 四強의 우리에 對한 安全保障이 絶對的要件인데 그것이 오랫동안 흐지부지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統一成就도 妨害받고 遲延되겠기 때문이다.

日本의 現 保守政府의 對韓半島政策은 「두개의 韓國」路線을 걷고 있는 듯하다. 美國은 復興 日本이 對韓 經援에 參與하기를 종용해 왔고 또 可及的이면 美國이 負擔하고 있는 對韓 經援의 大部分을 日本이 떠맡아주기를 希望했다. 그리하여 「對韓經濟協力」이란 名目 밑에 日本의 對韓經濟進出이 開始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実績을 보면 그의 經濟援助는 韓國經濟의 自立化를 위하여 貢獻한다기 보다는 自國의 生産製品을 消化하는 市場으로 그 「經濟協」을 利用하고 있으며 韓國의 低勞賃을 노린 保稅加工 혹은 組立工業을 大舉進出시키고 이른바 斜陽産業施設을 바가지 싸우며 심지어 自國 「汚染」企業을 韓國에 移植「輸出」하려다가 自國內의

輿論批判에 밀려서 주춤하는 등…… 대개 그의 作風은 이러한 式이 었다. 그는 統一되기 以前에 圧倒的인 經濟進出을 하려 서둘고 있음이 분명하고 한편 뒷문으로 손을 北쪽에 뻗쳐서 그와의 交流本性(經濟的 去來 包含)을 점점 더 頻繁하게 하고 있다. 요지음 日本의 大企業들(政界의 高位層까지도)이 韓國의 統一보다는 現狀維持가 바람직하다고 公公然히 言動함을 우리는 결코 黙過할 수가 없다.

이리하여 日本의 對韓 經濟進出이 統一 以前에 圧倒的 排他的으로 優勢하게 되었을 경우 우리 統一問題가 論議되는 마당에서 그는 항상 自己의 經濟的 「既得權」護持를 위하여 強力한 發言을 하려 들 것이다. 만일 日本이 再軍備를 하게 된다면 그의 發言은 軍事力의 뒷받침까지 받게 될 것이다. 事態가 이러한 方向으로 發展한다면 우리의 統一問題는 더욱 錯雜하게 될 수 밖에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四強이 진실로 韓國統一의 早速한 成就를 願한다면 지금에 있어서 어떤 特定國家의 一方的·偏重的 對韓進出을 制止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위에서 中共·日本間 平和友好條約 協商에 言及하였거니와 中共 石油資源의 急速한 進展에 따라서 1980年 까지에는 中共產油로 日本의 需要油類의 10%까지를 供給하고 爾後 더욱 增大할 것이며 日本은 그대신 資本과 産業技術을 中共에 供給하기로 條約 協商에서 論議되고 있다 한다.

이것은 우리 統一問題와도 關聯을 갖게된다. 왜냐하면 위에서

中共의 對韓半島統一政策의 한가지 項目은 日本의 過大한 對韓進出을 막는데 있다 하겠으니 中共은 日本과의 經濟交流의 通路를 통하여 影響力을 미칠 수 있겠기 때문이다. 특히 日本은 所謂 「닉슨·쇼크」를 두 차례나 겪고 世界的 에너지 波動 以後 美國의 軌道에서 漸次 벗어나서 獨自의 外交路線을 걸기 시작하였으며 또 美國의 中東外交가 失敗하고 東南亞 事態가 惡化되어 그의 國際的 威信이 어느 程度 墜되고 있는 이때이니만큼 中共이 對日關係에서 漸次 高地를 차지하게 됨은 우리 統一問題 解決을 위하여서도 적지 않은 意義를 갖는다 하겠다.

上述에서 보는바와 같이 韓半島를 위요한 四強의 利害關係는 錯雜하게 얽혀 있다. 만일 우리 統一問題를 그들의 協商—그들이 밀고 당기는데만 맡겨둔다면 問題解決은 百年 河清格이 되고 말 것이다. 事態의 그러한 轉落을 막는 길은 오직 카이로會談 以來 물려 받은 우리의 疏外狀態를 克服하고 우리가 問題解決의 主導權을 掌握함에 있다. 國際情勢를 「主体的」으로 活用하라고 提唱하는 所以다.

全協運動은 또한 우리 國內에서 그러한 氣運造成을 위하여서도 全幅 貢獻하고자 한다.

五. 結 論

우리는 本稿 緒論 첫머리에서 우리의 統一運動은 왜 國民化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 물음을 提起하고 그 물음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統一問題에 있어서의 民族疎外化를 克服하고, 나아가 主体的意識을 갖고 統一成就를 志向하며 그것을 拳族的인 強有力한 意慾을 結集하고 實動함으로써 民族存立上 絶對的要件이 되는 統一成就를 戰取하기 위하여 우리 統一運動은 國民화가 時急하다고 提唱하는 바이다」라고 스스로 對答했었다.

그리고 그 以下 第3項에서 먼저 民族的 一体感を 造成하여 民族士氣를 昂揚할 것과 第4項에서 國際情勢를 「主体的」으로 活用하여 카이로會談 以來 물려받은 우리의 疎外狀態를 克服하고 우리가 問題解決의 主導權을 掌握하자고 提唱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한 方案을 결들여 提示했었다.

그런데 民族的 一体感 造成이나 國際情勢의 主体的 活用이란 현재 大韓民國 政府의 行政權이 實際로 미칠 수 있는 領域에 局限한 士氣昂揚이나 主体의力量만으로써는 우리 統一成就를 戰取하기에 不充分하다. 그것은 自명한 埋致였다. 그러므로 民族的 一体感은 南北을 통한 「全民族」의 一体感이 造成되어야 하며 南.北을 통한 「全民族」의 主体力量이 結集 蓄積되어야 한다. 단일 全民族을 통한 一体感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南.北은 相互 敵對視. 猜忌. 憎惡. 誹謗하여야 하며 相互 警戒. 警備를 持續하여야 하고,

결국 南·北이 모두 經濟成長(外援包含)의 半分假想을 軍備維持에 投入하여야 한다. 經濟發展의 可能性에서 오는 成果를 제대로 거두어 들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對外關係에 있어서도 例를 들면 北쪽은 中共·蘇聯에 依存하려 하고 또 한쪽은 그와 다른 나라들과 提擧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니(적어도 對抗措施上), 그렇게 되면 「全民族」의 主体力量은 兩分狀態를 그냥 持續하는 셈이 된다. 어느 저물에 國際情勢를 우리가 主体的으로 活用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民族一體感 造成이나 民族的 主体力量의 蓄積은 南北을 통한 一體感造成과 主体力量 蓄積에 歸結하는 問題였다.

그러나 第3·4 兩項에서 所論한 바 우선 이쪽만의 一體感 造成이나 主体力量 蓄積이 不必要하다 함은 아니다. 그것은 도리어 현재 民族史 創造行爲에서 훨씬 옆으로 逸脫하고, 世界 共產黨의 水準에서도 가장 落後的이고 北쪽의 支配的集團을 「全民族」의 正常軌道로 끌어들이기 위한 前提的 必須條件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南部만에서의 一體感造成과 主体力量蓄積은 그것대로 充分한 意義를 갖는다 함이다.

七. 四共同聲明은 第2項에서 「雙方은 南北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信賴의 霧困氣를 造成하기 위하여 서로 相對方을 中傷 誹謗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莫論하고 武裝挑發을 하지 않으며 不意의 軍事的 衝突事件을 防止하기 위한 積極的인 措置를 取하기로 合意하였다」고 規定하고 또 第3項에서 「雙方은 끊어졌던 民族的 運梁을 回復하며 서로의 理解를 增進시키고 自主的 平和統一

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南·北 사이에 多方面적인 諸般交流을 實施하기로 合意하였다」고도 했다. 이 文字들은 要컨데 民族的 良識의 表現이었다. 이 聲明이 發表되었을 때에 國內에서는 물론, 全世界가 驚異의 눈을 크게 하면서 韓牛島를 再注視하였던 것은 民族的 良識의 表現인 이 文字들이 如實히 遵守 實踐되기를 期待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뒤 北쪽에서 對南 誹謗 再開·南派 間諜活動 再開·秘密 땅굴 發覺과 北機의 對南 領空 侵犯 등 일련의 事故發生으로 말미암아 南北對話(赤十字會談 包含)는 中斷狀態에 陷入되어 있다. 이런 형편이니 聲明發表 以前부터 論議되던 國際 스포츠 共同팀 構成問題를 비롯 記者團 交換問題·觀光資源 共同 開發問題 등은 話題도 꺼내보지 못한채 總스톱狀態에 있다.

最近 우리側 文人들이 南北 作家會議를 열자고 提議하였으나 그쪽에서는 아직 아무 反應이 없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金日成集團의 好戰的 性向으로보아 到底히 南·北이 一體化하기란 不可能하다고 悲觀한다. 金日成集團이 극도로 好戰的인 은 사실이다.

따라서 그들 相對로한 「全民族」의 一體感 造成은 不可能하다고 일단 悲觀할만도 하다.

그러나 好戰主義는 獨裁者 일반에게 通有하는 性向이다. 그들은 언제나 外敵이 侵入해 온다고 危機造作을 하면서 自己支配下에 있는 人民大衆의 關心을 밖으로 향하게 하고 國內를 戰時體制化하다

가 適當한 時刻에 그 餘勢를 물고 스스로 對外侵略戰을 展開한다.

히틀러의 경우가 그 適例라 하겠다. 히틀러의 경우는 당시 自國의 国力을 갖고 敢行할 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갔었지만 (결국 自由世界 聯合軍 앞에 餘地없이 敗亡하고 말았으나) 金日成의 경우는 그와는 다르다. 즉 그는 独自の 힘만 갖고는 外侵 (즉 南侵) 한 발자국도 떼어 놓을 수가 없다. 六.二五事變적에는 스탈린이 背後에서 밀어주고 나중에 中共軍이 出動하여 도와주었으니 말이지 그 두가지가 없었든들 애당초에 生意도 못하겠거니와 나중에 남는 아무것도 없었을 터이다. 지금은 六.二五 당시와는 國際情勢가 일변하였다. 즉 金日成의 外侵을 도와주겠다는 者는 自由世界에서도 共產圈에서도 하나도 없다. 그만큼 東西 和解. 協商 努力은 進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國際情勢가 反轉하지 않는 限 金日成의 好戰主義는 반드시 破綻되고야 말 것이다.

金日成의 神格化 個人崇拜 政策의 真相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 政策의 開祖도 스탈린이었다. 그는 토로츠키의 國際 革命主義 路線을 克服하고 이른바 一國社會主義 建設政策 年次計劃 經濟 政策을 一糸不括한 態勢로 強行하기 위하여 마치 바티칸의 教皇無謬說과 비슷한 權威를 自己 指導權에 賦與하려고 個人崇拜 그 神格化政策을 發明해냈던 것이다.

그러나 후르시초프時代에 와서 半世紀에 걸치는 計劃經濟 施行으

로 蘇聯의 生産增強이 美國을 뒤따랐고 그를 앞지르게 되었다고 判斷이 생겼을 때에 그의 有名한 스탈린格下가 實施되고 平和共存論의 具體的 實踐에 들어갔다. 中共에서도 對美 和解協商이 開始되고 上海共同聲明이 發表된 이후 약 1개년의 시간이 지내는 사이에 全國에 걸쳐 毛沢東의 個人崇拜을 위한 標語·國号·寫眞 등이 모두 撤去되고 毛語錄의 經團的 資格도 取消되다시피 했다.

그밖에 共產世界 어떤 나라에서도 스탈린時代와 같은 個人崇拜熱은 지금 退潮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항차 金日成에게 있어서는 스탈린과 같이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政策的 要件이 있는 것도 아니요. 기껏해야 個人的 獨裁支配慾을 充足시키자는 目的에 지나지 못하니 아무리 幼稚園 兒童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金日成의 덕이요. 너희들 입에 보리 밥명이가 들어가는 것도 그의 덕이라고 가르쳐 보았자 일견 어느 곳 絞首台上에서 死刑者가 했다 하듯이 「적화통일만세」를 부르고 죽을 경우는 있을지언정 「김일성 만세」를 부르고 죽는 자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 金日成集團의 個人崇拜 神格化政策의 限界 그 억척 같은 絶壁이 가로 놓여 있다.

우리가 北韓까지 包含하여 「全民族」을 論할 때에 반드시 金日成集團만을 擧念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도 金日成集團의 掌握下에서 人間의 基本的 權利와 自由를 完全 剝奪 당하고 신음하는 1千萬 同胞를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그 血管속에 우리와 꼭 같은 피가 흐르고 꼭 같은 言語를 말하며 같은 옷을 입고 같은 傳統·文化와 生活習俗을 이어 받아오는 우리 同族이다.

이는 결코 센티멘탈한 民族感情이 아니며 혹과피—피는 물보다 질다식의 나치스의 堅白辯을 빌어 쓰고져함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와 꼭 같이 外勢가 우리를 疎外化하고 저희들끼리 저질러 놓은 잘못—우리 國土分斷 때문에 우리와 꼭 같이 苦痛을 받고 있는 同族이며 따라서 民族的 疎外化를 克服하고 民族的 主体力을 發動하여 우리의 完全獨立과 우리의 國土 再統一을 完遂하여야 할 共同責任을 질 義務와 權利를 갖는 同族인 것이다.

그러므로 全協運動은 北韓同胞와의 合心·合力으로 民族的 一体感의 造成과 民族的 主体力의 結集·蓄積을 眞心으로 企圖하지 않을 수 없다.

(1975年 4月 21日)